

“수행 점검하며 깨달음의 길 걸어갑니다”

7월 13일 조계종부산연합회 ‘하안거 재가안거 반결제’

재가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의 정진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를 7월 13일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에서 진행했다.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하안거에 동참한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수행 방법과 성과 및 경험을 나누는 포살법회다. 특히 이번 반결제는 재가 안거에 동참한 재가자들의 수행 점검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모인 재가자들은 지도법사로 참여한 스님들에게 직접 수행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 답변을 듣고, 도반들의 수행담도 들으며 정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교육원장 하림 스님, 포살원장 범천 스님, 사무국장 정관 스님, 문화국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산 동명대 설동근 총장이 함께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반결제를 시작하며 참가자들은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에 대한 의지를 굳게 세웠다. 이어 법회를 통해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발원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영원히 행복하고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이라며 “행복을 위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안거에 동참하는 재가자들은 참선, 기도, 사경, 다라니 등 자신에 맞는 기도법을 선택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날 점검에 참가자들은 수행 내용에 따라 반을 나누어 스님들에게 지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선반은 수진 스님, 정관 스님, 도명 스님, 인혜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여했다. 수

안거 수행 점검 위한 특별 법석

1000여명의 재가 불자 참석

참선·기도·다라니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과 실참 지도

진 스님은 참선 전 바른 자세와 손모양 및 자세한 몸풀기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지도했다. 이어 재가자들은 함께 실참한 후 화두와 몸의 변화 등에 대해 질문 시간을 가졌다.

수진 스님은 “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화두에 대한 의정을 놓치는 것”이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참선 초보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몸의 고통이니 기본적 자세를 유지하고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7월 13일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점검 반결제’를 진행했다. 사진은 참선 지도 모습.

했다. 기도반에서는 혜성 스님, 보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섰다. 보연 스님은 “기도의 종류는 간경(看經), 염불, 절 기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따라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라니 반에서는 하림 스님, 일철 스님이 사경반은 주석 스님, 범천 스님이 참여했다.

다라니 기도에 참석한 김지은 불자는 “기도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며 평생 해야 할 일이란 것을 도반들의 수행 나눔으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며 “다라니 기도의 힘인지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변화된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경반에 참여한 강우숙 불자는 “평상시

에 집중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사경을 하면 거짓말처럼 지체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안거에서는 지장경을 사경하고 있는데 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로 알게 되는 좋은 수행법”이라며 환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수행 모듬별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 서로의 수행법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안거에는 20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 중이며 각 사찰에서는 수행을 독려하며 재가자 수행문화 정착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원효 스님 주석처 천성산 화엄의 성지”

내원사, 7월 14일 원효봉 정상석 제막식

양산 내원사(주지 진성)가 7월 14일 정상석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는 내원사의 노력으로 천성산 제1봉이 다시 원효봉이란 이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번 제막식을 통해 내원사는 천성산 1봉의 본 명칭은 ‘원효봉’임을 알리고 천성산이 화엄의 성지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천성산 습지를 복원하고 자연을 보호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행복할 것을 발원하는 산신제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미타암 주지 산운 스님, 원효암 주지 범철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산시 관계자들은 “천성산은 전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며 불교의 성지로 생각한다”며 천성산을 함께 보호해 갈 뜻을 밝혔다.

내원사 주지 진성 스님은 “천성산 원효봉 제막식을 통해 불교의 성지임을 다시 확고히 했다”며 “오늘 산신제는 그동안 공사로 많은 생명이 죽은 것을 위로하고 천

성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해발 922m에 세워진 천성산 원효봉 정상석은 1m 80cm의 크기로 글씨체는 석보상절을 원형으로 제작했다. 새롭게 정상석을 제작한 원효봉은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이 <화엄경>을 설한 지역으로 지금도 그 일대를 화엄벌이라 부르고 있다. 천성산은 원효 스님을 따르던 988명이 이곳에서 득도를 해 지어진 이름이다. 20년 전부터 양산시는 원효봉을 천성산 제1봉으로 부르고 표기했으나 내원사 스님들의 노력으로 정상석을 제막하고 불교성지 대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내원사는 “천성산 제2봉이라고 명칭 되고 있는 장소도 원래는 ‘비로봉’이란 고유의 불교 명칭이 있다며 이름을 정확히 되돌리고 불교 성지임을 천명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내원사는 천성산 1봉의 본 명칭은 ‘원효봉’임을 알리는 정상석 제막식을 거행했다.

부산불교연합, 연등축제평가보고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7월 14일 부산코모도 호텔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대해 평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5부산 연등 축제는 50만 부산시민이 함께한 부산 대표 관광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새롭게 변경한 연등축제 장소 ‘송상현 광장’은 접근성이 용이해 참가도를 높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남달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통등 강습 및 체험 부스 등은 낮에 실시해 호응이 떨어졌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평가회 및 회향식에서는 전통등 및 장작등 수상가 시상식도 개최됐다.

하성미 기자

이대원 회장의 <바라밀 일기> 출판 기념 사인회



“70년 신행이야기에 환호와 박수가”

이대원 회장의 책 <바라밀 일기>와 시집 <누가 허공을 비었다 했는가>의 출판 사인회가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중)에서 7월 11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지 목중 스님, 이대원성 회장(사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목중 스님은 이대원성 회장의 70년 신행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으며 참가한 불자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목중 스님은 참여한 모든 불자들에게 책(바라밀 일기)을 법보시하며 격려해 더욱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목중 스님은 “이대원성 보살님은 부산이 한 국불교의 중심이 되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분”이라며 “신행이야기가 담겨 있는 바라밀 일기를 읽고 그 삶 속에 묻어나는 불교의 지혜를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원성 회장은 “책을 발간하고 첫 사인회인데 이렇게 대광명사에서 정성을 담

아 환영 해주시고 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한 가지라도 공감하고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더욱 기쁠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참가한 불자들은 이대원성 회장의 신행이야기를 들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사인회에 참가한 평순자(77) 씨는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대판 승만 보살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 빨리 읽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지선(43) 씨는 “보살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책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공부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이 회장의 책 출판 사인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부산 초량 소림연화선원, 7월 22일 오전 11시 부산 흥법사에서도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보현사, 덕암·충담 스님 부도탑 제막

7월 12일 400여 명 동참

경남 통영 보현사(주지 목원)가 7월 12일 덕암·충담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보현사 회주 혜화 스님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해 덕암·충담 스님의 뜻을 기리는 부도탑 제막식을 축하했다.

부도탑 제막식은 1부 호산 스님 의 영상 재보존회가 집전하는 다례로 시작해 2부에서는 조탑 점안과 내빈들의 추모사가 진행됐다. 특히 보현사는 축하 화환대신 공양미를 받아 백미 500kg을 통영여성포럼 배도수 회장에게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지 목원 스님은 “대승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셨던 모두의 큰 스승이신 충담 스님과 덕암 스님의 부도를 세우고 두 분 큰 스님의 사리기를 봉안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며 “백천 감동과 부처님의 기피를 온 몸으로 느꼈다”고 기쁨을 전했다.



덕암·충담 스님 부도탑 제막식

보현사는 부도탑 행사를 준비하며 지난 3년 동안 3회에 걸쳐 백일기도를 봉행하고 사리진건법회를 개최해 온 바 있다.

한편, 충담 스님은 태고종 대중사 법계 품수와 승정에 추대됐고 세수 86세 법랍 69세에 소신공양으로 열반에 들었다. 덕암 스님은 1970년 태고종의 초대 총무원장을 맡았으며 1986년~1993년 태고종 제 13대 총정, 1999년 제16대 총정으로 재추대되었던 1996년에는 태고총림 방장에 취임했다.

하성미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품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 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방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 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 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 효과,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증상을 자연치유시키며 당뇨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허복부에 탄력을 주는 다목적 품온벨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 후 : 일주일정도는 평상시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온열복대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룸비니디지털불경 및 금강염주 손목 합장주**를 드립니다. 스님 불자들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상판매(신제품 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제품 설명

-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는 1,0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역할을 하여 소원성취 될 것입니다.
- 배터리가 필요없는 내장용 충전방식입니다.
- 규격 : 8.5×5.2×2.0cm / 소비자가격 : 39,000원
- 아답터(DC5V)는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_ 02.723.090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종적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꽂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필요없는 배터리 내장용 충전방식이어서 편리하게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스님 불자님에게는 기가 발산되는 금강약돌 손목 합장주 (15,000원) 를 드립니다.